

조선왕조실록 밀천 삼아 <한국인 이야기> 씨넬 작가들을 기다린다 조선왕조실록 100배 즐겨 읽기

글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선왕조실록이야말로 한류의 무한한 보고(寶庫)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세계한국학대회에 참석한 분의 얘기다. ‘한류와 영화산업’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그 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5,0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방송작가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빈곤이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작가들이 대본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대 민속신화를 발굴하는 데 열심이다. 그런데 그 신화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너무 단편적이어서 영화나 드라마로 발전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무궁무진한 얘기 거리와 수많은 등장인물, 그리고 다양한 의식(儀式)절차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2, 제3의 ‘왕의 남자’나 ‘대장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고전이라는 것이다.

한류(韓流)의 보물창고 조선왕조실록

실제로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총1,894권으로 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정의 국가 대소사에서 시작해 두메산골의 여염집 치정사건에 이르기까지 없는 얘기가 없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의 경우, 왜 충녕대군(세종)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로 시작되는 ‘국왕의 조건’, 그 시대의 큰 골칫거리였던 중국사신의 예우와 사대외교문제, 대마도 및 여진족 정벌을 둘러싼 논쟁과 갖가지 전략전술들, 조선왕조 최대의 섹스 스캔들이었던 ‘유감동X파일’, 궁궐 내 동성애 사건과 왕세자빈 폐위과정, 비밀 프로젝트 훈민정음 창제 등 그야말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얘기 거리가 들어 있다. 문제는 그렇게 풍부한 얘깃거리를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필자의 경험에 의거해 소개하고자 한다.

실록 활용의 3가지 방법

첫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CD-ROM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록의 소개와 열람실, 자료실 및 토론마당 등의 작은 방들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람실에 들어가면 왕대별로 열람할 수도 있고, 주제 분류나 용어 색인에 의해 열람하거나, 실록의 원본 이미지를 열람할 수도 있다.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용어색인데, 가령 조선시대의 중요한 낱말의 하나인 ‘공론’이란 말을 검색창에 쳐보면 10,193건이 왕대별로 나뉘어서 나타난다.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실록학교’에 ‘등교’하여 배우는

방법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실록읽기는 어느 정도 역사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너무 큰 광산일 뿐이다. 자기가 원하는 광물, 즉 금광이나 은광 또는 철강을 캐내기 위해서 어느 쪽 산모퉁이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이 필요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세종실록학교' '정조실록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록학교'의 특징은 그 분야의 전문학자가 해당 실록에 대한 개략적인 마인드맵을 그린 다음, 한권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매주 주제별·시기별로 나누어 읽고 정리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수강생의 30%는 문화산업생산자들인데, 이들은 실록 안의 풍부한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실록 속의 흥미로운 내용을 수강생들이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이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아마도 실록의 구술성이 되살아나면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 듯하다.

셋째,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읽어보는 방식이다. 국역본 실록의 경우, 책의 뒷편에 해당 내용의 원전이 나란히 실려 있다. 굳이 영인본으로 된 실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조실록을 맨 처음 읽었는데, 처음엔 용어가 생소해서 무척이나 진도가 더디게 나갔다. 겨우 2회독, 3회독을 하고 나서야 전체적인 열개와 쟁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의 1년을 꼬박 이 일에 쏟아부었다. 어쨌든 그 '무지막지한 통독 작업'을 끝내자 비로소 실록의 '구조'를 느낄 수 있었고, '낙시' 수준에서 거질 수 없었던 수많은 얘기 거리를 통째로 건져낼 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용어와 해당 인물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이다. 요즘 이 책은 CD-ROM으로도 서비스 되는데(<http://www.encykorea.com/encykorea.htm>), 네이버나 다음의 지식카페의 검색창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 이야기> 써낼 작가를 기다리며

얼마 전 <로마인 이야기>를 15년 만에 완성한 시오노 나나미는 “나는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아름다운 천을 만

들어 나갔던 전설 속의 여인 '쓰'(津)와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 년의 절반을 자료를 얻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스코틀랜드 구석구석까지 로마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고문서며 최근 연구까지 두루 섭렵했다. “왜 로마사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소박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로마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의 '쇠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쇠퇴했다면, 그전에는 번창했다는 말인데, 왜 그 번영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집필 동기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역사야말로 너무 '쇠퇴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졌고, 여러 왕조의 창업과 번영의 과정은 무시되지 않았던가.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모든 왕조가 흥망성쇠의 부침(浮沈)을 겪었다. 우리 역사 안에도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형편없는 정치꾼들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왕조사가 새로 창업된 왕조의 관점에서 기록되다보니 패망의 이유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일제에 의해 패망한 조선왕조의 경우는 더욱 왜곡이 심했다. 창업의 이념과 번영기의 인물과 제도를 생략하고 패망의 이유만 기록하는 것이 과연 옳당한가. 그것은 마치 소년시절의 꿈과 청·장년기의 활동을 빠뜨리고 병약한 노년기의 모습만을 그리는 것과 같지 않은가. 말하자면 왕조의 꿈과 활동을 잘 그려주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예의'라고 할 것인데, 실록은 그 좋은 텍스트이다. 즉 후대의 왕조에서 그 전의 왕조사를 쓰는 전조사(前朝事)와 달리, 같은 왕조 안의 사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자세히 기록했다가 다음 임금시기에 모아 편집하는 실록(實錄)은 지나친 왜곡과 과도한 찬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특히 국왕과 신료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엄정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언행과 업적이 그야말로 '자자손손'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정사에 임했고, 그것은 조선왕조의 번영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 <한국인 이야기>라는 아름다운 천을 자아낼 작가들이 나타나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 **한민**